

창업활동이 성장의도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첨 희¹, 정대용^{1*}

¹송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The Effects of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n Performance Mediated by the Growth Intentions

Xi Zhan¹ and Dae-Yong Chung^{1*}

¹Department of Venture and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요 약 글로벌화 시대의 역동적 경영환경 측면에서나 국가경제 전략측면에서 볼 때 창업활동은 경제의 유연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가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창업활동이 성장의도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목적은, 현재 중국에서 기업경영하고 있는 기업가들 402명을 대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창업활동은 창업가의 주관적 활률(실현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성장의도는 최고경영자인 기업가의 성장에 대한 의지로 정의되었으며, 기업성과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로 측정되었다.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연구가설을 검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시된 가설 모두가 채택되었다. 즉 중국기업가의 창업활동이 성장의도 및 기업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장의도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의도가 매개효과를 가졌는지 검증하는 결과에서는 성장의도가 보완적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가의 창업프로세스과정에서의 관련된 첫 탐색적인 연구로서 공헌점이 적지 않다. 가령 창업전체 프로세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련 모형을 토대로 한 탐색적·이론적 검토 및 실증적 검증 모두를 살폈다는 공헌은 인정할 만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research purposes is apply to the expectation theory for the China's entrepreneurs .want to know the relations model among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performance and growth intentions. According to the study, all of hypothesis have been suggested. In other words, entrepreneurial activities, growth intentions and performance effects and growth intentions show the mediated effect in the research.

Key Words : Entrepreneurial Activities, Growth Intentions, Performance.

1. 서론

창업활동(Entrepreneurial Activities)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창업활동은 개인에게는 부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끄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창업활동의 활성

화는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화 시대의 역동적 경영환경 측면 및 국가경제전략 측면에서 볼 때 창업활동은 경제의 유연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가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의 중국은 13억 여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 960만 Km²의 광활한 대륙,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천연자원,

본 논문은 2012년도 송실대학교의 연구비 후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Dae-Yong Chung

Tel: +82-10-5528-8668 email: zhanxi@naver.com

접수일 12년 08월 08일

수정일(1차 12년 09월 03일, 2차 12년 09월 19일)

게재확정일 12년 11월 08일

엄청난 군사력과 외교력 외에도 매년 계속되는 고성장과 세계 정상급의 무역액,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실적과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 등을 자랑하는 거대국가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통한 창업정신을 풍부한 사영(민영)기업가들은 투철한 상인정신과 장사꾼 기질로 무장되어 있으며, 법규와 정책의 틀 안에서 각자의 실리를 도모하고 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조직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중국 시장 경제체계의 질적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창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속적인 기업의 큰 성장을 모든 창업가들이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다. 창업활동을 시작하고 성공까지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최근 창업에 관한 선진연구 동향에 따르면 동태적 역량의 관점에서 창업가들이 창업하기 전에 가지던 기대는 창업가들의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바 이들 각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시도를 국내 처음으로 살펴보고 있다[16]. 또한 창업활동이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비교연구에서는 한 중 창업가 모두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 창업가 특성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는 연구 결과를 실증하였다[18].

본 연구는 창업에 대한 기대가 창업 및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대용·침희(2011)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시켜 기업이 창업행동이 성장의도를 매개로 기업성장에 영향까지 살펴보려는 연구를 시도했다. 창업활동 후 창업가의 성장선택은 기업가가 성과에 핵심결정요인이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있어서 창업활동이 기업성과 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높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창업활동 및 성장의도

창업활동(Entrepreneurial Activities)은 개인의 특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명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Vesper(1983)는 “새로운 독립기업의 설립, 즉 창업은 국가의 중요한 자원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창업활동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들은 고용창출을 통해 비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Stam and Turik(2009)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창업활동을 노동, 자본, 기술에 이어 네 번째 생산요소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활동은 하나의 조직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창업단계는 창업자가 사업의 기회를 인지하고 준비하는 단계로 창업팀의 구성이 완료되고 사업장이 확립되는 단계이다.

성장은 기업 규모나 세력 등이 점점 커지는 것, 또는 양적으로 증가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소기업의 성장은 의지통제가 중요한 변수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소기업관리자의 개인적인 동기는 성장 결과와 연결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장은 기업이 특성의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소기업 성장은 소기업 관리자의 성장관리 역량에 의존한다[32].

또한 정대용·침희(2011)가 기대이론의 1차 결과기대(노력-성과)를 적용한 중국기업가 대상 실증연구에서, 창업활동은 성장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창업가 성장에 관한 관심을 갖고 창업을 하니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보다 규모의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형 창업에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창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조직들의 지원방향 등이 어떤 내용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17].

그러므로 창업활동은 기업가의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선행이론을 근거로 창업활동이 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1: 창업활동은 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활동 및 기업성과

창업활동의 경제적 중요성과는 달리 국가별로 창업활동의 특성과 활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국가의 경우에는 창업활동이 매우 활발하지만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활동이며,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의 기회가 확대되어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창업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창업활동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창업활동에 대해 신생기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가는 상업기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에 대한 모방[7]과 신생창업 기업으로서의 불리함[2]으로 시장확보에 대한 어려움 등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는 외부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내부로 끌어오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시장을 확보해야하는 등의 다양한 창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기업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Venkatraman(1991)에 의하면 기업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의 경영하는 방식과 기업가, 그리고 성과간의 적합성(Fit)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업성과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한 정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노력, 기업경영의 생산성, 혹은 수익성 등 연구의 목적이거나 각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활동은 창업가에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창업가들의 창업해서 모두 기업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선행이론을 근거로 창업활동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2: 창업활동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성장의도 및 기업성과

성장은 기업가정신의 결과변수로 성과향상 및 기업성장을 고려하고 있다. 즉 기업의 성과는 경영과 기술혁신의 중요한 결과물, 고용창출 및 산업들의 경쟁의 결과물로 여겨지고 있다.

Naffziger(1994)은 전체 창업과정을 살펴보면 창업 시작단계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창업후 그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포함해야한다고 보고, 전체 창업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창업자의 개인 특징, 가족관계와 성별과 같은 창업자의 개인적 환경, 창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 창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자원획득의 용이성과 같은 사업적 환경, 구체적 사업아이디어, 그리고 창업행동이 이익과 매출, 시장점유율과 같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등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창업이후 기업의 성장과 창업기업가의 역량 및 역할은 상호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기업규모나 업력과 관계없이 최고경영자의 수준과 성과는 해당 기업의 성공과 생존 모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결정변수이다. 성장이란 최고경영자가 갖고 있는 성장에 대한 의지 또는 의도로,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자 개념이다.

기업의 성장과정을 발전단계별로 구분하면 창업단계 및 지속단계, 그리고 도약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소기업 성장은 소기업 관리자의 성장관리 역량에 의존한다. 소기업 관리자의 성장관리 역량은 기업 규모의 증가와 부응하여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

함한다. 창업기업가에게 성장은 좋은 목표로 여겨지며, 성장은 창업가에게 성공의 비료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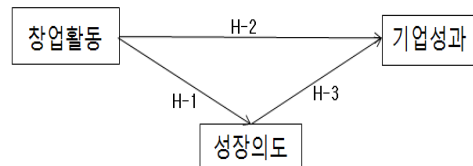
기업가의 성장의도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업성과에 관한 전략적 관점이다. 그러므로 성장의도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선행이론을 근거로 성장의도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3: 성장의도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성장의도는 창업활동과 기업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존재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 4는 이하와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4: 성장의도는 창업활동과 기업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3.1 자료수집 방법 및 표본 특성

본 연구의 자료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작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중국기업가들에게 배포·회수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11년 9월~12월의 약 3개월에 걸쳐 중국본토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했다. 불성실한 응답이나 이상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거하여 유효한 설문지 총 40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결과로 도출된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 과정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하고 사용된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하도록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여기에 중국 기업가들에 관한 추가적 정보의 획득을 위해 개인특성과 인구·통계적 측정문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사후 검증하기 위해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한테 한국어로 번역 요청하였다.

[표 1] 표본기업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 of the Sample

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설립 년수	1년미만	22	5.5	중업 원수	5명 이내	41	10.2
	1~3년	187	46.5		5-50인	247	61.5
	3-5년	76	18.9		51-200인	81	20.1
	5-10년 이상	117	29.1		200인 이상	33	8.2
성별	남자	228	56.7	결혼	미혼	88	21.9
	여자	174	43.3		기혼	314	78.1
학력	고등학교이하	14	3.5	현재 연령	30세 미만	19	4.7
	전문대	69	17.2		30-34세	150	37.3
	대학교	265	65.9		35-39세	101	25.2
	대학원	54	13.4		40-44세	74	18.4
창업 당시 연령	30세 미만	246	61.2	업종	45세 이상	58	14.4
	30-34세	96	23.9		섬유업	112	27.9
	35-39세	28	7.0		제조업	18	4.4
	40-44세	27	6.7		정보통신업	14	3.5
창업 경험	없다	48	11.9	건설업	31	7.7	
	있다	354	88.1	전자전기	80	19.9	
Total		402	100	유통운송업	48	12.0	
				서비스업	99	24.6	
Total		402	100	Total		402	100

수집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설립년수로는 1~3년 기업이 제일 많았으며 187개로 46.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순으로 5~10년 이상 기업이 117개로 전체의 29.1%를 차지하였다. 3~5년 기업은 76개로 전체의 18.9%이며, 1년 미만의 기업은 22개로 전체의 5.5%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56.7%인 228명이고, 여성이 43.3%인 174명이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가 14명으로 3.5%, 전문대가 69명으로 17.2%, 대학교가 265명으로 65.9%, 대학원이 54명으로 전체의 13.4%이었다. 창업 당시 연령은 30세미만자가 246명으로 61.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현재연령은 30-34세자가 150명으로 37.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창업경험별로는 창업하기 전에 창업경험이 없는 기업가가 48명으로 11.9%이고, 창업하기 전 창업경험 있는 기업가가 354명으로 88.1%를 차지

하여 가장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섬유업이 112명으로 27.9%, 서비스업종이 99명으로 24.6%, 전자전기가 80명으로 19.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결혼 여부로는 기혼자가 절대적 다수인 314명으로 78.1%를 차지하였고, 미혼자는 88명으로 21.9%이었다. 마지막으로 중업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들 중 61.5%에 달하는 247개 업체가 5-50인 기업의 운영자로 나타나서 조사대상 기업가들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은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구성개념들에 대한 측정도구는 기존 선행 연구를 근거로 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선행연구의 측정항목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조사대상의 측정과 현장의 사정에 맞게 일부 단어나 문맥을 수정하였다.

먼저 창업활동은 창업가가 특정한 행동을 통해 성취한 창업활동이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적 도구로서 창업가의 주관적 확률(실현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22]. 본 연구에서는 단일 항목을 활용하여 이를 측정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장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상용하는 대신에, 기업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Human and Matthews(2004) 그리고 박동수·구연희(2007)의 연구를 활용해서 주관적 측도인 성장의도만을 사용하고자 한다[24, 34].

성장의도는 크게 자원의 집적화 의도, 기술적 개선의도, 시장확장 의도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자원의 집적화 의도란 인적·물적 자원을 기업의 목표를 위해 확보하려는 정도를 의미하며, 시장 확장 의도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존 시장의점유율을 높이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Cooper, Gascon and Woo(1994)의 연구를 토대로 사용한 설문문항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시장 확장의 도로”등으로 구분하여 4가지 질문을 활용해서 Likert 5점 척도로 성장의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Covin and Slecion(1990)은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Performance)에 직접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Zahra(1991)는 환경 전략 조직 등이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고, 아울러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46].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가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업의 재무적 수치를 공개하는 것을 한국보다 더 꺼려하다[17]. 이러한 재무적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의 주요 정보와 재무적인 내용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 지표의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Covin and Slevin(1990)은 벤처기업의 성과를 주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지표를 통한 측정은 해당 기업의 주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방식을 취하는데, 보통 양적 성과는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 매출목표달성, 순이익 증가, 순이익 목표달성, 전반적 경영성과 향상 등에 대한 기업가의 평가를 위주로 하며 질적 성과는 종업원 수의 증가 등으로 측정한다[12].

[표 2] 변수명의 정의 및 측정 문항 수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

변수	구성 요소	변수정의	선행연구	문항 수
창업활동	삶의 목표성취	창업가의 주관적 확률(실현가능성)에 대한 믿음	Gatewood (2004) 정대용·첨희(2011) 정대용·한판섭·첨희(2012)	1
성장의도	자원의 집적화 기술개선키의도 등	최고경영자의 성장에 대한 의지	Human and Matthews (2004) 박동수·구연희(2007) 정대용·첨희(2011)	4
기업성과	양적·질적 성과	창업기회 포착해서 창업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수익	Covin and Slevin (1990) 정대용·김준광·첨희(2010)	12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SPSS 18.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사용된 설문항목은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최초 설문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저해하는 문항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4. 분석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먼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각 측정문항들을 모

두 포함하여 요인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요인회전은 직각회전인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사용될 변수들과 선택된 문항의 신뢰성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내적일치성(Internal Consistency)을 가지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Nunnally (1970)가 제시한 0.6이상으로 설정하여 신뢰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의도, 기업성과는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분석과정 중, 사회과학에서 요구하는 요인적재치 0.4 이상으로 적용하여 제대로 적재되지 않은 항목은 제거하였다. 이런 결과 각 항목들의 요인적재치가 0.715에서 0.849의 범위를 가지며 모두 0.5이상 비교적 높게 나타나 타당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추출과정에서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들만 추출되었고, 누적설명력은 성장의도가 72.073%, 기업성과가 55.762%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 최소 기준치인 0.4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문항을 제거한 후 나머지 문항들의 Cronbach's α 값이 0.612에서부터 0.900까지로 모두 높게 나타나서 각 변수의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일 항목으로 측정된 창업활동요인은 신뢰도 분석 및 타당성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 변수 간 요인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분석 결과
[Table 3] Validit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변수	측정 문항	요인1	요인2	신뢰도
성장의도	의도1	.849		.612
	의도2	.849		
기업성과	성과1		.746	.900
	성과2		.740	
	성과4		.740	
	성과5		.752	
	성과6		.757	
	성과7		.754	
	성과8		.774	
	성과9		.772	
	성과10		.715	
	고유값(Eigen-value)		1.44	
분산설명력(%)		72.07	55.76	-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도구의 기초적인 통계수치를 확인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피어슨 이변량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를 적용하였다.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표 4]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평균	표준 편차	창업 활동	성장 의도	기업 성과
창업활동	4.23	.445	1		
성장의도	4.45	.563	.428 ^(**)	1	
기업성과	4.38	.615	.257 ^(**)	.354 ^(**)	1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상관관계분석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창업활동과 성장의도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창업활동과 성장의도가 모두 기업성장에 대하여 각각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을 간접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3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창업활동이 성장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창업활동을 독립변수로, 성장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가설1의 회귀분석결과
[Table 5] Regression Analysis about hypothesis 1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 확률
성장의도	상수	.359		-9.383	.000
	창업 활동	.080	.427	9.458	.000 ^{**}
	R=.427, R ² =.183, 수정된R ² =.181, F=89.449, p=.000				

*p<0.05, **p<0.01

창업활동이 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증결과, t값은 9.458(p=.000)로 ± 1.96 이상이므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창업활동이 성장의도도 높아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설1은 채택되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89.44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183로 18.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되었으며, 창업활동이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가설2는 창업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고 가설3은 성장의도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창업활동 및 성장의도를 독립변수로,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가설2 및 가설3의 회귀분석결과
[Table 6] Regression Analysis about hypothesis 2 & 3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기업 성과	상수	.264		8.900	.002 ^{**}	
	창업 활동	.056	.130	2.524	.012 [*]	.817
	성장의도	.058	.298	5.806	.000 ^{**}	.817
R=.373, R ² =.139, 수정된R ² =.135, F=32.196, p=.000, Durbin-Watson=2.042						

*p<0.05, **p<0.01

창업활동 및 성장의도가 기업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 및 가설3의 검증결과가 다음과 같다. 창업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524(p=.012)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으며 성장의도가 t값 5.806(p=.000)로 가설3이 채택되었다. 즉 창업활동 및 성장의도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창업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차한계(Tolerance)값은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32.19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135으로 13.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2.042로 수치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4 및 가설5는 모두는 채택되었으며, 창업활동 및 성장의도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가설 4는 성장의도는 창업활동과 기업성과 간에 매개 역할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The three-ste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Baron and Kenny(1986)는 매개 작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1단계 단순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2단계 단순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네 번째, 매개변수를 포함한 3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은 독립변수 단독으로 회귀분석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혹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어야 한다. 이때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수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변수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본다. 감소한 경우에는 부분매개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전혀 없는 경우에는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6].

이를 위해, 첫 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창업활동을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수 성장의도를 투입시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는 창업활동, 종속변수로는 기업성과를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로 창업활동과 성장의도, 종속변수로 기업성과를 다중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성장의도는 창업활동과 기업성과 간에 매개효과에 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성장의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Table 7] Mediated Analysis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값	유의확률	R ²	ΔR^2
1	성장 의도	창업 활동	.428	9.459	.000**	.183	.181
2	기업 성과	창업 활동	.257	5.325	.000**	.066	.064
3	기업 성과	창업 활동	.056	2.524	.012*	.139	.135
		성장 의도	.058	5.806	.000**		

*.p<0.05, **.p<0.01

구체적으로 창업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장의도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0.428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0.257,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056, 매개변수가 0.05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1단계에서 18.3%의 설명

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6.6%, 그리고 3단계에서는 13.9%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Xinshu Zhao, John G. Lycch JR. and Qimei Chen(2010)의 연구에 따르면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모두 유의하며 양(+)의 관계가지고 있으며 보완적 매개효과이라고 한다. 가설4는 채택되었다. 즉, 창업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장의도가 보완적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8]이다.

[표 8] 가설검증 결과

[Table 8] Hypothesis Analysis

가설	내용	채택 여부
1	창업활동은 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창업활동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성장의도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	성장의도는 창업활동과 기업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5. 결론

한국은 열악한 창업경영환경 때문에 새로 설립되는 기업보다도 쓰러지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의 한 조사 결과 1999년에서 2008년까지 10년 동안 도산한 기업수는 43,649개 사에 이르며, 2010년에는 부도업체 수가 1,143개 사로 하루에 약 3개의 기업의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기업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인적,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창업활동 후에 성장의도를 매개로 한 기업성과 간의 인과관계모형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최근 중국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총 402부를 분석하였다.

실증연구 분석결과, 제시된 기본가설 모두가 채택되었다. 즉 창업활동, 성장의도 및 기업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활동은 성장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활동 및 성장의도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의도는 창업활동 및 기업성과

간에 보완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실무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활동이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실증결과 중국 창업가들의 창업활동은 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포부(성장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반영함)는 실제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Wiklund 및 Shepherd(2003)의 주장과 정대용·침희(2011)가 기대이론의 1차 결과기대(노력-성과)를 적용한 중국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창업은 성장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둘째, 창업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실증결과 중국 창업가들의 창업활동은 기업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생계형 창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창업을 시작하며, 창업활동해서 기업성고가 얻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성장의도는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중국 창업가들은 창업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을 통한 기업성장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려는 기업가적 기호추구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기업성고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장의도가 매개변수로 추가됨에 따라 창업활동은 기업성고에 영향 변동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한편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은 향후 연구에서 고려될 필요를 이하에서 소개한다.

첫째, 우선 선행 연구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바로 이 점이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

둘째, 광활한 중국의 지역적 특성상 전체 지역과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 즉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향후에는 동일한 주제로 보다 넓은 지역 및 보다 다양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표본으로 수행할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중국 창업가들만 위주로 연구하다 보니 한국기업가들에게는 어떤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특징차이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차후의 한중 기업가 특성의 차이 비교에 따른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창업프로세스 전체의 관점에서 본 창업기 회포착행동이 궁극적으로 창업행동의 선행변수로 이어지는 과정까지를 더 세분화시킨 연구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대기업주도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무기로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가의 창업프로세스과정에서의 관련된 첫 탐색적인 연구로서 공헌점이 적지 않다. 가령 창업전체 프로세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련 모형을 토대로 한 탐색적·이론적 검토 및 실증적 검증 모두를 살폈다는 공헌은 인정할 만하기 때문이다.

References

- [1] Ajzen, "Attitudes, Traits, Actions Dispositional Prediction of Behavior in Social Psycholog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pp. 1-63, 1987.
- [2] Aldrich, H., & Zimmer, C., Entrepreneurship through social networks. In D Sexton, & R. Smilor(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3 -23. Cambridge, MA: Ballinger, 1986.
- [3] Alvarez, S. A. and Barney, J. B., "Discovery and Creation: Alternative Theories of Entrepreneurial Action,"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1(1), pp. 11-26, 2007.
- [4] Baker, T., Nelson, R., "Creation Something From Nothing: Resource Construction Through Entrepreneurial Bricolag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0, pp. 329-366, 2005.
- [6] Barney, J.B., "Strategic Factor Markets: Expectations, Luck, and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Science*. 32(10), pp. 1231-1241, 1986.
- [7] Barney, Jay,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pp. 99-120, 1991.
- [8] Baron, Reuben M. and David A. Kenny,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 1173-82, 1986.
- [9] Busenitz, L. W, Barney, J, B.,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Managers in Large Organizations: Biases and Heuristics in Strategic Decision Making,"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1), pp. 9-30, 1997.
- [10] Casson, M., *Entrepreneurship, Business Culture and the Theory of the Firm*,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3.
- [11] Cooper, A. C., F. J. Gimeno-Gascon, and C. Y. Woo,

- "Initial Human and Financial Capital as Predictor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5), 371-395, 1994.
- [12] Covin, J. G. and Slevin, D. P.,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pp. 123-135, 1990.
- [13] Cyert, R. M., March, J. G.,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3.
- [14] Chung Dae-Yong and Roh Kyoung-Ho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Behavior and Network Types on firm Performance as Growth Step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11), pp. 3354-3362, 2009.
- [15] Chung Dae-Yong, Kim Choon-Kwang and Xi Zhan, "A Study of the Moderating Effectiveness of Networking between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5(3), pp. 1-20, 2010.
- [16] Chung Dae-Yong and Xi Zha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xpectancy of China's Entrepreneur upon Start-up Business and Growth Intention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1), pp.4881-4887, 2011.
- [17] Chung Dae-Yong and Yang Jun-Hwan, "An Empirical and Comparative Study of Mod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ing and Perceived Firm Performance of SEMs of Korea and China", *International Management Review*, 13(2), pp.27-56, 2009.
- [18] Chung Dae-Yong and Xi Zhan, Kwihan-Seop Han,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xpectancy on Entrepreneurial Outcome and Expect Growth Intention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5), pp.2079-2086, 2012.
- [19] Dae-Yong Chung, Xi Zhan, Kwihan-Seop Han, "The Effects of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n Entrepreneurial Outcome Satisfaction Mediated by the Growth Intentions-Focused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and Chinese Entrepreneurs-",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7(1), 2012.
- [20] Drucker, Peter 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New York, NY.,: Harper and Row, 1985.
- [21] Eckhardt, J. T. and S. A. Shane, "Opportunities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Management*, 29(3), pp. 333-349, 2003..
- [22] Gatewood, E. J., "Entrepreneurial Expectancies," in *Handbook of Entrepreneurial Dynamics: The Process of Business Creation*. Eds. W. B. Gartner, K. G. Shaver, N. M. Carter, and P. D. Reynolds. Thousand Oaks, CA: Sage, pp. 153-162, 2004.
- [23] Hanks S. H. and Chandler, G., "Patterns of Functional Specialization in Emerging High Tech Firm,"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3(2), pp. 23-36, 1994.
- [24] Human, S., and C. Matthews, "Future Expectations for the New Business," in *Handbook of Entrepreneurial Dynamics: The Process of Business Creation*. Eds. W. B. Gartner, K. G. Shaver, K. G. Shaver, N. M. Carter, and P. D. Reynolds. THhousan Oaks, CA: Sage, pp.386-400, 2004.
- [25] Kirzner, I.,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26] Lau, C. M. and L. W. Busentz, "Growth Intentions of Entrepreneurs in a Transitional Econom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6(1), 2001.
- [27] Low, M. B., Macmillan, I. C., "Entrepreneurship: Past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Management*, 14(2), pp. 139-16, 1988.
- [28] Linda F. Edelman, Candida G. Brush, Tatiana S. Manolova, and Patricia G. Greene, "Start-up Motivations and Growth Intentions of Minority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8(2), pp. 174-196, 2010.
- [29] March, J. G, Simon, H. A., *Organizations*, New York: John Wiley, 1958.
- [30] McClelland, D.,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Van Nostrand, 1961.
- [31] Milgrom, P., Roberts, J., *Economic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New York: Prentice Hall, 1992.
- [32] Naffziger, D., J. Hornsby, and D.Kuratko,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29-42, 1994.
- [33] Nunnally, J. C. Jr., *Introduction to Psychological Measurement*, New York: McGraw Hill, 1970.
- [34] Park Dong-Soo, "An Exploratory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Its Effects on the Growth Intention in Venture Business",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6), pp.2979-3011, 2007.
- [35] Scott, M. and Bruce, R., "Five Stages of Growth in Small Business," *Long Range Planning*, 20(3), pp. 45-52, 1987.
- [36] Sexton, D. L. and Bowman-Upton, N. B., *Entrepreneurship: Creativity and growth*. New York:

- Macmillan, 1991.
- [37] Shane, S. A. and S. Venkataraman,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pp. 217-226, 2000.
- [38] Shane, S. A.,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The Individual-Opportunity Nexus*, Edward Elgar: Northampton, MA, 2003.
- [39] Short, J. C., D. J. Ketchen, Jr., C.L. Shook and R. D. Irel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Past Accomplishment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Management*, 36(1), pp. 40-65, 2010.
- [39] Stam, Erik, Chantal Hartog, Stel Andrevan, and Thurik Roy, *Ambitious Entrepreneurship, High-growth Firms and Macroeconomic Growth*, Scales Research Report, 2(February), 2009.
- [40] Timmons, J.,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Fourth edition, McGraw-Hill, Boston, 1994.
- [40] Vesper, K. M.,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2, 1983.
- [41] Venkataraman, S. and Van de Ven, A., "Hostile environmental jolts, transaction set, and new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3, pp. 231-255, 1991.
- [42] Vroom, V. H.,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John Wiley, 1964.
- [43] Weick, K. E.,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ing*, 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 [44] Wiklund, J., and D. Shepherd, "Aspiring for, and Achieving Growth: The Moderating Role of Resourc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0(8), pp. 1919-1941, 2003.
- [45] Xinshu Zhao, John G. Lycch JR. and Qimei Chen, "Reconsidering Baron and Kenny: Myths and Truths about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8), pp.197-206, 2010.
- [46] Zahra, S.,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 pp. 259-286, 1991.
- [47] Zhang Shen-Wei, "Entrepreneurship and Motivation for Start-up Entrepreneurs in China", *East-Asian humanities*, 16, pp.361-377, 2010.

첨 희(Xi Zhan)

[정회원]



- 2008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2012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 중국기업가, 사회적 자본, 리더십

정 대 용(Dae-Yong Chung)

[정회원]



- 1988년 12월 : 한국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1983년 3월 ~ 현재 : 한국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부 교수
- 2001년 8월 ~ 2002년 7월 : 미국 케네소우 주립대학교 초빙교수
- 2007년 7월 ~ 2008년 12월 : 한국창업학회 회장
- 2011년 3월 ~ 현재 : 한국 숭실대학교 특임부총장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전략, 사회적 기업, 사회적 자본, 리더십